

# “총선 고지 선점” 지역위원장 쟁탈전

## 대통합신당 광주·전남 등 주내 선임 마무리 현역의원·입지자·대선후보 캠프 나서 각축전

대통합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선임이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지역위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데다 추후 정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현역 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물밑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당의 텃밭격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11일 대통합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한 결과

13일까지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오는 15일 이후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선임 과정에 대선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합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일 상당수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며 “나머지 지역위원장은 오는 13일께 선정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되는 지역위원장의 임기가 대선 이후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18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물론 추후 정국 구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각 후보 캠프와 지역구에 자리를 잡은 18대 총선 입지자들은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구 사수에 나선 현역의원들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례대표 J 의원은 전남지역 모 지역위원장 자리에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는 각 후보 캠프에 포진한 총선 입지자들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후보 캠프와 당의 중진들도 경선과 대선 이후의 정국에 대비, 자신과 가까운 총선 입지자들을 지역위원장으로 삼기 위해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통합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선정에서는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역구에서는 현역의원과 18대 총선 입지자가 공동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지역위원장 선임은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정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합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의원들만 지역위원장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위원장 선임이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검찰 임채진號 순항할까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에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내정됨에 따라 임 내정자가 향후 총장직에 안착해 검찰호(號)를 순항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국회검증 통과 무난할 듯 ‘선거 수사’ 임기 유지 변수

◇국회 관문 무난히 통과하나=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내정자 본인의 재산이나 병역 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증이 이뤄진다.

임 내정자는 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다했고 아들 또한 카투사로 현역 육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병역검증 관문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내정자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시 신고한 액수는 19억4천여만원으로, 본인과 부인 명의 등 아파트 2채 가격이 포함돼 있지만 축재 의혹을 살만한 것은 없다.

최근 딸의 결혼식에는 법조계 인사 등 매우 많은 하객들이 몰렸지만 축의금을 받지 않는 등 비교적 검소하게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반론을 제기했었고 ‘일심회’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 등 ‘386 세대’의 연루설이 돌아 여론과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됐었다는 후문이 있다.

◇선거수사-임기에 영향 미치나=선임 검찰총장의 최대 현안은 대선 정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및 정치권 관련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핵심이다.

특히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총장 임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과정이 큰 대선 관련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신임 총장의 임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편파수사’나 ‘정치 검찰’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임 내정자가 이날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소감을 밝힌 점도 선거 수사의 예민함과 무관치 않다.

◇내정자 선배·동기 거취 ‘관심’=원활한 지휘권 행사를 이유로 신임 총장의 사시 선배나 동기들이 사표를 내는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가 있다는 점에서 임 내정자의 선배 및 동기인 사시 18·19회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 내정자의 사시 19회 동기 6명 중 일부는 총장 취임 전후로 옷을 벗겠지만 상당수는 2~3월 단행되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으므로 조직 안정 차원에서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 관리를 위해 정동기 대검 차장 등 사시 18회 ‘선배들’도 당장 검찰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들이 검찰을 떠나더라도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해 최소한의 인사만 실시하고 임 내정자의 동기들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총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총장 후보군을 포함해 임 내정자의 동기들이 당분간 현직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를 기대할 것이라는 예측도 만만치 않았다.

/연합뉴스

## 국어원 ‘눔현스럽다’ 靑 항의에 화들짝

### 한때 책 회수 검토 소동

‘눔현스럽다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서 생긴 말이다’

국립국어원이 한글날을 앞두고 출간한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 63쪽에 실린 ‘눔현스럽다’가 청와대의 항의를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자 한때 책의 회수를 검토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책의 내용 중에 국가원수에 관한 표현이 들어 있는데 개인 학자의 저술이라면 문제가 없었지만 국가기관 보고서라면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자의 항의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책의 회수나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국립국어원은 청와대측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책의 배포를 맡은 도서출판 태학사에 책의 회수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학사 담당 편집장은 “국어원측에서 흑시 책을 거둘 수 없느냐고 물어오기에 ‘불가능하다. 이미 다 찍어서 서점에 배포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일 내부논의를 통해 책의 회수를 검토했으나 책을 회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는 2002~2006년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3천500여 개의 신조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사전이다.

‘눔’ =노무현 대통령을 속되게 이르는 말.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 우두머리, 최고를 뜻하는 짝이 합쳐진 말이다. ‘눔빠’ =노무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나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등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몇몇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들 수난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남북자가족모임 대표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위) 이날 오후 서울 서소문 올리브타워에서 열린 비정규직보호법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 “盧인사 목숨 걸고 반대할 생각 없어”

### 비판적 수용쪽으로 가다

한나라당은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임명 방침에 대해 애초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기 정부로 인사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던 기류와는 완전히 달랐다.

강재섭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된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

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임기 말 인사는 부적절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를 굳이 행사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사법개혁 반론...청와대 386과 갈등 빚기도

#### 임 검찰총장 내정자 프로필

검찰 행정·기획팀으로 선이 굵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검찰국장 시절 중수부 폐지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조직을 대변해 후배들로부터 ‘할 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도 검찰의 ‘입’ 역할을 했다.

특히 현 정부 초기 추진됐던 사법개혁에 반론을 제기해 청와대 ‘386 세대’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이런 이유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임 내정자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후문도 있다.

개혁에 반론을 제기해 청와대 ‘386 세대’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이런 이유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임 내정자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후문도 있다.

▲부산(55·사시19회)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2차장 ▲춘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

# Photonics Festival

시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시어  
光 산업 촉제한마당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光 산업 촉제한마당!

# 光 산업의 날 촉제한마당

2부행사 1부 행사 후 개최합니다

1부 행사 10월 12일(금) 14:00~17:00

2부 행사 10월 13일(토) 10:00~13:00

1부 행사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부 행사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이재정

이상수